



제8회 한일 청소년 대학생 역사대화 第8回韓日青少年大学生歴史対話

당일 사진
当日の写真

2025年8月8日
於・福岡大学



日韓青少年歴史対話は2011年度ラクーンで高麗大学の鄭淳一先生（写真右）が第一回国史たちの対話でコメントした「次世代のための『対話の場』を作ろう」という提案を実現したプロジェクトで、今年で8回目を迎えます。今年で11回目となる早稲田大学高等学院の柿沼亮介先生（写真左）が開催する「越境対馬」プロジェクトと随所で合同のプログラムを共有し、日韓の生徒・学生が対話を深めてきました。今年度はこの2つのプログラムの最後を飾る福岡での合同プログラムの一部をSGRAが共催し、福岡大学を会場に「歴史対話の経験を聴く、経験から学ぶ」「パブリックヒストリーを考える」という2つのセッションを行いました。

韓国からは高麗大学と全南大学の学生が、日本からは早稲田大学高等学院の生徒と福岡大学、東京科学大学、早稲田大学の学生が参加し、総勢60名が活発に意見を交換し歴史と対話について共に考えました。



한일 청소년 역사대화는 2011년도 라쿤에서 고려대학교 정순일 선생님(사진 오른쪽)이 제1회 국사들의 대화에서 코멘트한 “미래 세대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실현한 프로젝트로, 올해로 8회를 맞이합니다. 올해로 11회가 되는 와세다대학교고등학교의 가키누마 료스케 선생님(사진 왼쪽)이 개최하는 “월경 쓰시마” 프로젝트와 여러 곳에서 합동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한일 학생들이 대화를 깊게 나누어 왔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후쿠오카에서의 합동 프로그램 일부를 SGRA가 공동 주최하고, 후쿠오카대학을 회장으로 “역사대화의 경험을 듣고, 경험에서 배우기” “퍼블릭 히스토리를 생각하다”라는 2개의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와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일본에서는 와세다대학교고등학교 학생들과 후쿠오카대학, 도쿄과학대학, 와세다대학 학생들이 참가하여, 총 60명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역사와 대화에 대해 함께 생각했습니다.



ソウルの独島展示施設を一緒に見学（日本の学生は事前に東京の領土・主権展示館も見学）したり、それぞれ対馬や福岡でフィールドワークを重ねてきた生徒・学生が発表し、一連のプログラムで体験したことや考えたことをシェアしました。

서울의 독도전시시설을 함께 견학(일본 학생들은 사전에 도쿄의 영토·주권전시관도 견학)하거나, 각각 대마도와 후쿠오카에서 필드워크를 거듭해온 학생들이 발표하며, 일련의 프로그램에서 체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学生・生徒による発表と質疑応答に続き、「歴史対話の経験を聴く、経験から学ぶ」をテーマに、ゲストの東京大学名誉教授の三谷博先生（写真左）と早稲田大学の劉傑先生（写真右）にこれまでのご自身の研究と歴史対話の経験をお話しいただきました。



학생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에 이어, “역사 대화의 경험을 듣고,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주제로, 게스트인 도쿄대학 명예교수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사진 왼쪽)과 와세다대학의 류제 선생님(사진 오른쪽)께서 지금까지의 연구와 역사대화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先生方のお話や学生達の発表に対して沢山の質問やコメントがありました。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학생들의 발표에 대해 많은 질문과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午前セッションの締めくくりとして、全南大学の金キョンテ先生（写真左・2010年度ラクーン）、福岡大学の柳忠熙先生（写真中・2014年度ラクーン）、東京科学大学の坂村圭先生（写真右）からコメントをいただきました。また、柳忠熙先生には、会場や機材の提供に多大なご協力いただきました。

오전 세션의 마무리로 전남대학교 김경태 선생님(사진 왼쪽·2010년도 라쿤), 후쿠오카대학의 류충희 선생님(사진 가운데·2014년도 라쿤), 도쿄과학대학의 사카무라 케이 선생님(사진 오른쪽)으로부터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또한 류충희 선생님께서는 장소와 기자재 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午後のセッションでは、SGRAラーニングの動画「歴史大衆化と東アジアの歴史学」を視聴した後、5つのグループに分かれてディスカッションをしました。

SGRAラーニングは、SGRA レポートの内容をわかりやすく説明する10～20分の動画で多言語展開しています。高校生や大学生低学年を対象に授業の副教材として使っていただくことを想定していますが、どなたでも[SGRA HP](#)から無料でご視聴いただけます。

今回視聴した動画の制作者であるノジュウンさん（写真・2016年度ラクーン）からSGRAラーニングの紹介がありました。



오후 세션에서는 SGRA 러닝의 동영상 “역사 대중화와 동아시아의 역사학”을 시청한 뒤, 5개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SGRA 러닝은 SGRA 리포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10~20분의 동영상입니다. 고등학생과 대학 저학년을 대상으로 수업 부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만, 누구나 [SGRA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청한 동영상의 제작자인 노주은 씨(사진·2016년도 라쿤)가 SGRA 러닝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時にファシリテーターの通訳やアプリの助けを借りながら、言語の壁を越えて活
発な議論が繰り広げられました。

때로는 퍼실리테이터의 통역이나 앱의 도움을 받으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ディスカッションの内容をグループごとに発表しました。

発表に対しても沢山の質問やコメントが出て、活発な意見交換が行われました。

토론 내용을 그룹별로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과 코멘트가 나와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最後にSGRA代表の今西常務理事から閉会挨拶があり、第8回
日韓青少年歴史対話は閉会しました。

福岡大学の食堂で懇親会も開催され、さらに交流を深めることが
できました。

SGRA 代表인 이마니시 상무이사의 인사말을 끝으로, 제8회 한일
청소년 역사대화는 폐회했습니다. 후쿠오카대학 식당에서 개최된
친목회에서 더욱 깊은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ご参加くださった先生方、学生・生徒のみなさま、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참가해 주신 선생님,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